

경제

LPG값 또 인상

수입가 상승 여파 내달 50원 안팎 오를듯

“장사가 잘 되면 모를까 장사도 안 되고 딱 값이랑 고추가루에 재료비도 죄다 올랐는데 가스비까지 오르고... 그렇다고 가격을 올리면 애들이 안 사먹을 것이고 밀지는 장사예요.”(광주시 서구 화정동에서 분식집 운영하는 김모씨)

“한 달에 150만원도 못 가져가는데 LPG 가격은 오르고만 있어요. 2009년에 700원대, 2010년에는 900원대, 2011년에는 1000원이 넘더니 올해는 1100원을 넘었다니까요. 요즘에는 불황이라고 사람들이 택시도 잘 안타요.”(택시기사 이모씨)

10월 들어 100원 넘게 오른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가격이 수입가 상승 여파로 다음 달 또 다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LPG 연료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단독주택이나 식당(프로판), 장애인 차량과 택시 등 차량(부탄)에 쓰

여 ‘서민연료’로 불린다. 하지만 동절기 난방 수요까지 겹치면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여 관련 업계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광주지역 LPG 충전소에서 팔리고 있는 자동차용 부탄 평균가격은 ㄹ 당 1066.18원으로 한 달 사이 62원이 올랐다.

프로판은 10월 첫째주 kg당 1442.60원으로 8~9월 1340.50원에서 102.1원이 오른 상태다.

LPG 수입판매사인 E1과 SK가스는 지난달 국제가격이 전월에 비해 대폭 상승함에 따라 이달 공급가를 kg당 각각 105원(ㄹ 당 61.32원), 102원(ㄹ 당 59.56원)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제 LPG 가격이 10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11월 국내 공급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LPG 수입업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가 결정하

는 국제가격을 반영해 다음 달 국내 공급가를 책정한다.

11월 인상은 이달 말 최종 결정될 예정이지만, 그동안 반영되지 않은 가격인상 요인을 고려하면 50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4개월간 프로판 수입가격 추이를 보면 575달러(7월)→775달러(8월)→970달러(9월)→1025달러(10월)로 상승곡선이 가파르다. 부탄도 같은 기간 620달러→775달러→930달러→965달러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제 LPG 가격이 상승세를 타는 것은 국제 유가 강세와 함께 계절적 요인에 따른 난방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한다.

업계 관계자는 “9월에 이어 10월에도 국제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11월 국내 가격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겨울 멋쟁이 ‘월동준비’

10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집화매장에서 여성 고객이 겨울철 필수 아이템인 부츠를 살펴보고 있다. 백화점은 오는 16일까지 ‘부츠·핸드백 대전’을 열고 올 가을·겨울 유행할 워커부츠를 비롯해 롱부츠, 핸드백 등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동치미국수·백김치’ 긴 여행 동반자로 대한항공 기내식 제공

대한항공이 다음달부터 장거리 노선 일등석 승객을 대상으로 동치미국수와 백김치를 곁들인 영양밥을 기내식으로 내놓는다.

대한항공은 다음달 1일부터 미주와 구주 등 장거리 노선 일등석, 프레스티지석 승객을 대상으로 동치미국수와 영양밥 등 전통 건강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치미 국물에 시원하게 말아낸 동치미 국수와 식감이 풍부한 갈비, 참, 은행, 참살 등을 섞은 단호박이 함께 제공돼 외국인 등 승객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대한항공은 기대하고 있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무는 이날 하얏트리젠시인턴 호텔에서 가진 시식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에게는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외국인에게 한식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다”며 “동치미국수는 전통 음식이지만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음식이어서 기내식으로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추석 상여금 영향 가게대출 8천억 줄어

은행의 가게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10일 내놓은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올해 9월 은행의 가게대출은 전월보다 8000억원 감소한 458조5000억원이었다. 은행의 가게대출이 감소한 것은 올해 1월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이는 계절적 요인 때문으로 보인다.

한은 통화정책국 윤상규 차장은 “추석에 받은 상여금으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갚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8월 8000억원 증가했지만 9월에는 7000

억원 줄었다. 모기지론양도를 뺀 주택담보대출 역시 주택거래 부진으로 200억원가량 감소했다.

9월10일 주택 취득세 감면방안이 발표되며 주택대출 수요도 법안 시행 이후로 미뤄졌다. /연합뉴스



상추가 돌아왔다

한달새 가격 80% 내려 4kg 1만5000원

태풍 피해로 급등했던 채소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상추값은 한 달만에 80% 내렸다.

10일 aT 농수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광주지역 상추(상품·4kg) 도매가격은 지난 9월4일 7만5000원까지 올랐던 것이 80% 떨어진 1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8월 말 4만원이던 시금치(상품·4kg)도 1만원으로 75%나 하락했다.

에호박(상품·8kg)도 8월 말 6만원까지 치솟았던 것이 78%나 떨어진 1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오이(취청·상품·20kg)도 한 달 전 7만40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68% 내렸다.

깻잎(상품·2kg)은 45% 하락한 1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들 채소류의 도매가격은 지난해 시세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런 내림세는 앞으로도 2~3주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조량이 증가하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엽채류와 과채류 생육에 최적조건으로 작용해 생산량이 늘어남에다 경기위축으로 전반적으

로 채소류 수요가 줄어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채소류 가격도 시금치는 한달에 1650원으로 8월 말보다 61.6% 내리는 등 일제히 하락했다.

다만 배추와 대파 등 김장 채소는 고령지 지역의 폭염으로 물량이 급감해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잇따른 태풍 피해로 출하량이 급감하고 명절까지 겹치면서 가격이 급등했던 것이 최근 생육에 좋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출하량 늘고 있다”며 “당분간 채소류의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은미기자 emlee@

광주·전남 9월 취업자 수 깜짝 증가

전년보다 4만명 늘어 실업률 0.6%P 하락

9월 광주·전남지역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1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9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경제활동인구는 70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만1000명(1.5%) 증가했다.

9월 취업자도 69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1만명(1.5%) 늘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부문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사업개입공공서비스 및 기타 1만2000명(4.4%), 전기운수통신금융 8000명(12.2%), 건설업 2000명(3.6%)이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사무종사자 9000명(7.9%), 서비스·판매 종사자 6000명(3.5%)가 늘었다.

고용률은 56.5%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1%포인트 하락했으며 실업자

는 1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000명(3.6%) 증가했고 실업률은 2.0%로 지난해와 같았다.

전남은 경제활동인구가 94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1000명(3.4%)이 늘었고, 취업자 수가 93만명으로 같은 기간 3만6000명(4.0%) 증가했다.

고용률은 63.5%로 0.8%포인트 상승했으며, 실업자는 1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5000명(27.6%) 감소했다. 실업률도 1.3%로 0.6%포인트 하락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리볼빙 가입 때 손실 설명 의무화

카드업계 내달부터

‘악탈적 대출’로 악명을 떨치는 신용카드 리볼빙(Revolving)을 오는 11월부터는 미화하지 못하고 리볼빙 가입 때 고객 손실 설명이 의무화한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는 내달까지 리볼빙 상품에 대한 표준약관을 만들어 고객의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표준약관에는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써온 명칭이 ‘리볼빙’으로 일원화된다. 리볼빙을 이용할 때는 고객이 어떤 금전적 손실이 갈 수 있는지 카드사가 반드시 알려주도록 약관에 명

기해야 한다. 리볼빙은 고객이 채무의 일정 비율만 갚으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돼 자동으로 연장되는 결제 방식이다.

리볼빙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렵다 보니 카드사들은 더욱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려고 그럴듯한 수식어를 붙여 고객을 헛갈리게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는 ‘자유결제서비스’, KB국민카드는 ‘페이플랜’, 하나SK카드는 ‘스마트 리볼빙 서비스’, NH농협카드는 ‘회전결제’ 등을 리볼빙 대체어로 썼었다.

우리은행의 우리카드는 ‘이젠(Easen) 리볼빙 서비스’라는 이름 아

래 ‘이젠 결제금액을 10~100%까지 고객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선전까지 하고 있다.

카드사의 이런 유혹에 끌린 리볼빙 이용자만 290여만명이고 이 가운데 100여만명이 저신용자다. 이들이 리볼빙 제도를 이용해 일부만 갚고 미뤄둔 미결제 금액은 1인당 210만원에 달한다. 리볼빙 연체율은 3.1%로 전체 카드사의 연체율 2.1%보다 높다.

금융 당국이 리볼빙 피해가 심각해지자 리볼빙 표준약관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카드사들이 관련 조치에 나선 것이다. 리볼빙 표준 약관 제정을 계기로 카드론과 체크카드 등 일상화한 카드 서비스의 표준 약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3회 광주일보배 전국 남자 아마추어 골프대회

2012년 11월 12일(월) 12:30분
함평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

- 참가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남자 순수 아마추어 골퍼에 한함
- 제외대상 | 가. 현재 각종 프로협회에 등록된 골퍼선수 나. 아마추어 국가대표 및 상비군 다. 경기위원회에서 대회참가가 불가하다고 판정된자.
- 경기방식 | 샷건, 신페리오방식 적용
- 적용규칙 | 대한골프협회에서 승인된 골퍼규칙과 경기위원회가 정한 로컬룰 적용
- 참가인원 | 160명(40팀)
- 참가비 | 1인당(6만원) (그린피, 개별소비세, 캐디피, 그늘집등의 비용은 개인 부담)
- 신청기한 | 2012. 10. 8 ~ 10. 12 (1차접수) 신청수 마감 2012. 10. 15 ~ 10. 19(미달시 2차 접수)
- 참가신청 | 온라인접수 - 함평다이내스티 홈페이지(hpdynastycc.co.kr)
- 예금계좌 | 농협 641087-51-043326 (예금주 : (주)광주일보사 함평다이내스티) ※접수마감 후 참가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참가기념품 | 골프용품, 만찬제공

특전

- 함평다이내스티CC 회원대우 및 준회원대우
 - 가. 우 승(1명) : 1년간 함평다이내스티 주중 그린피 면제, 주말 회원대우
 - 나. 준우승(1명) : 1년간 함평다이내스티 주중 회원대우, 주말 준회원대우
 - 다. 메달리스트(1명) : 1년간 함평다이내스티 주중 그린피 면제, 주말 회원대우
- US-GTF 티칭프로라이센스 실기테스트 합격권 부여
 - 가. 남 77타, 장년부 79타, 시니어 82타
 - 나. 장년부 : 만 41세~49세(11월 12일 기준)
 - 다. 시니어 : 만50세 이상(11월 12일 기준)
- US-GTF 라이선스 소지자 함평다이내스티CC 주중 회원대우

| 주최 | 60 광주일보사 | 주관 | 함평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 | 진행 | US-GTF(KOREA)
| 후원 | 전라남도, 함평군, 전남골프협회 | 문의 | 061-320-7777, 320-7700